

#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

-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Focused on the Case of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이 연 옥 (Yeon Ok Lee)\*

강 영 아 (Young Ah Ka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및 결론 |
| 3. 연구방법과 연구 대상 |            |

### 초 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research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role of the public library as a public sphere. For thi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library's role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public spheres operated by the public libr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librarians at Seongbuk Public Libraries in Seoul. Data collected were coded using NVivo for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library's role in the public sphere were identified in the following five types: 1) A place for meeting,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of citizens, 2) Supporting citizen learning and growth through information services and discussion on the subject, 3) Expanding civic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and strengthen civic power, 4) Strengthening citizens' experience of democracy, 5) Improving citizens' perception of libraries and expanding the library's influence on citizen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services enhance citizen interaction and spread of public opinion on the agend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ing and supporting libraries as community public spheres.

키워드: 공론장, 지역사회 요구, 정보서비스, 시민 참여,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Public Sphere, Community Needs, Information Services, Civic Engagement,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 부산대학교 BK21 생활밀착형정보서비스 전문인력교육연구단 연수연구원  
(idisfeel@hanmail.net / ISNI 0000 0004 6487 2027) (제1저자, 교신저자)

\*\* 장위행복누림도서관 관장(kangyah@sbculture.or.kr / ISNI 0000 0005 0538 3669)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139-160,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139>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을 통해 개별 시민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지원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수행해 온 전통적 역할이자 도서관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역할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연동되어 진화하고 발전한다. 시민의 만남과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역할에 주목하는가 하면(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 2007), 도서관이 시민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박성우, 2014; 이승민, 2016; Aabø et al., 2010; Vårheim, 2007). 아울러 도서관이 지역사회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Goulding, 2009; Kranich, 2012; Scott, 2011; Willingham, 2008).

이에 더해, 최근에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하고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유럽을 중심으로 개정 도서관법을 비롯한 도서관 사명에 도서관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회합의 장소로서 지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를 지원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함을 명시하여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Audunson et al., 2019). 연구자들 또한 지역사회 정보요구를 지원하며 주민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해온 도서관 역할에 주목하며 도서관과 공론장과의 관련성,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Alstad & Curry, 2003; Bushman, 2005a; Williamson, 2000). 이들 연구에서는 공론장을

공공도서관 본연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와 동시대의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공론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공론장은 개인들이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이러한 공론장은 한 국가의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윤영태, 2008). 특히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요구가 발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쟁점을 둘러싼 의견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지역 주민의 관심과 요구, 쟁점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형태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효래, 2014, 154-5).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보다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대화와 토론을 위한 공적 영역이 위축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주민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지역 주민과 정보를 매개하여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서관이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표라는 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공론장이 필요하다(Johansson, 2004).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론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고 현장의

경험과 사례에 대한 공유와 이에 대한 토의가 미약하여 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이 수사적인 표현이나 개별 연구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공론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현장 사례의 개발과 공유를 비롯하여 공론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이 수사적이거나 근거 없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관심을 고양시키며,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중요한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론장

공론장(public sphere)이란 독일의 사회철학자 Jürgen Habermas가 구체화한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나 결론을 도출하는 공간이나 과정을 말한다(하상복, 2016, 53). 공론장은 공공 영역이라는 용어로도 논의된다. Hannah Arendt는 공공 영역을 사적 영역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동의 것에 대해 의사소통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으로 정의한다. 즉 공공 영역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이 되는 것이자 소통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숨김없이 서로의 진심을 말하는 영역으로, 대화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으로 설명되고 있다(주명진, 박일호, 2012, 421).

공론장이 시민의 공통 관심을 상호 소통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필요조건으로 개방성, 공통의 관심사, 토론을 들고 있다(Habermas, 1989). 개방성은 참여에 대한 개방성과 동등한 기회이다. 계층, 인종, 성별, 연령,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 가능해야 한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는 공동의 관심을 끄는 모든 문제가 공적인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하며, 토론의 결과가 시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조건으로 정보를 들 수 있다. 공론장을 정보 영역의 입장에서 논의해온 Nicolas Garnham을 비롯한 학자들은 공론장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제공과 분배를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과 숙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Garnham, 2000; Webster, 2014). 이러한 공론장의 요건들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공론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공론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annah Arendt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으로 모여 말과 행위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론장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공적 삶으로서 가치와 자유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하였다(Arendt, 1958). 또한 공론장은 지역사회 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시민의 숙의와 토론,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이 수렴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며, 시민성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선미, 2010; Arendt, 1958; Habermas, 1989). 이에 더해,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양한 시각과 의견 차를 상호 조율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영태, 2008; 이승훈, 2010; Habermas, 1989).

## 2.2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의 의미와 가치, 역할 및 기능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조명되고 있다. 먼저, 사회학자 Webster(2014)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론장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보자료의 제공을 통해 정보와 사고의 흐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고하였다.<sup>1)</sup>

영국의 문헌정보학자인 Williamson(2000)도 공공도서관이 공론장의 전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중의 하나인 '공평성'이 하버마스가 강조한 공론장의 주요 특징인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조건에서 참여 가능해야 한다는 개방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하버마스의 공론장 관점을 도서관과 관련시켜 다양하게 조명한 Bushman(2005a; 2005b)은 공공도서관이 하버마스 공론장의 많은 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도서관이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조사 및 연구가 이상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곳으로 정보자료에 입각한 숙의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비판적 토론이 가능한 지역사회 민주적 공론장에 부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 Alstad와 Curry(2003) 또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이 합리적인 담론을 촉진하고 시민의 자기 교육을 지원하기에 도서관이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만남의 장소로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서 지역사회 공론장 기능을 지원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장려되고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 2007).

아울러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민의 회

1) Habermas는 18세기 유럽에서 마을광장, 커피하우스 등이 독립적인 토론이 형성되는 공론장의 주 무대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경우 문학계의 공론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공론장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Habermas, 1989, 17).

합을 통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기능이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추동한다며 공론장을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도서관 운영 전략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Kranich, 2012; Willingham, 2008). Willingham(2008)은 시민이 공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의 부재를 지적하며 도서관이 시민 담론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관련 자원과 조직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ranich(2012) 또한 도서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연결하여 대화와 토론을 이끄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을 만드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그에 대해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선택에 숙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깊이 이해하며,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시민을 연결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시민성 개발을 비롯한 민주주의 구현과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Widdersheim과 Koizumi는 도서관과 공론장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도서관 공론장의 개념적 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Widdersheim & Koizumi, 2016; 2017). 그 결과, 하버마스 공론장을 구성하는 개방성, 합리적 토론, 공동의 관심을 기초로 도서관의 공론장 영역을 세 가지 유형의 담론으로 식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서개발이나 이주민

서비스와 같은 도서관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담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 등의 도서관 합법화와 관련된 담론, 사회 및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와 함께 도서관 현장에서 시도한 주목할 만한 공론장 사례로 미국 도서관협회가 운영 중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사업이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별 도서관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단계(2014~2015년), 2단계(2016~2018년), 3단계(2020~202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현재 4단계(2022~2024년)가 진행 중이다. 각 단계별로 참여 도서관을 선발해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 사례를 미도서관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모델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이 중 대표적 유형을 소개하면, '대화 카페(Conversation Cafés)형'은 카페에서 이뤄지는 열린 대화와 같이 사랑, 죽음, 폭력 등 관심 가는 모든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편안히 느끼며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학습이 이루어지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견하도록 운영한다. '필수 파트너(Essential Partners)형'은 정치적 양극화나 종교, 인종, 가치 등의 의견에서 찬반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된 주제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상호이해,

신뢰회복을 목표로 운영한다. 또한 '변화를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대화(Everyday Democracy's Dialogue to Change)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통의 해결책을 찾도록 고무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국가 이슈 포럼형(National Issues Forums)'은 건강관리, 이민, 치안, 약물 남용, 에너지, 기후 변화 등과 같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탐구와 지식의 확장을 장려하고 공공의 의사결정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미도서관협회는 각 유형에 따라 시민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이 사업은 개별 도서관이 공론장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주요 쟁점과 문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협력형 프로젝트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공론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중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반해 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어 기능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을 고찰한 연구로는 국내 박성우(2016)의 연구가 있다. 그는 1단계에 보고된 5개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공동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사례 도서관의 활동이 도서관내 구성원의 리더십 개발, 도서관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방향 설정, 지역 주민과 사서의 관계

구축,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지역 주민과 사서의 협력이라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특성과 기능이 공론장의 특성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조명하거나,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전략으로 공론장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공론장 특성에 부합하는 도서관 현장 사례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며, 이들 사례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 사례의 발굴과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3. 연구방법과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데이터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성북구립도서관은 서울시 성북구 소속의 15개 도서관을 의미하며, 사례 도서관인 성북구립도서관이 소재한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하나로 현재 약 4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2002년 성북정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현재 총 15개의 구립도서관이 소속되어 운

영 중이며 성북문화재단이 수탁 관리하고 있다 (〈표 1〉 참고).

성북구립도서관은 2016년부터 ‘마을in수다’라는 이름으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론장은 서울시 성북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도서관의 정책과 서비스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2016년 당시 성북구 정책의 방향은 ‘주민자치역량으로 생활, 골목, 마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복원’이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러한 정책기조를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렴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론장을 지역사회 문제와 주민의 관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설정하였고, 도서관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론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하였다(성북문화재단, 2016).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개의 공론장을 운영하였으며,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 수는 총 2,173명으로 집계된다(〈표 2〉 참고). 공론장의 주요 주제는 기후 위기, 환경 문제, 코로나19, 교육, 소비, 노동, 디지털 기술, 고령화 사회, 반려 동물, 청소년 공간 등 우리 사회의 문제, 지역사회 현안, 주민의 고민과 관심을 토대로 설

정되고 있다. 이처럼 7년간 성북구립도서관 소속의 도서관들이 67개의 공론장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경험이 누적되고 있기에 공론장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분석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발행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론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관장 및 담당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관장과 사서는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해온 주체이면서, 동시에 공론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 참여 주민에 대한 관찰과 대화 등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친 공론장의 성과를 목격하고 체험해왔다. 따라서 이들이 도서관 공론장의 주요 역할, 특성, 성과와 의미를 상세히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공론장을 3회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서 및 관장을 1차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론장의 설계 및 운영 경험을 가진 핵심 운영자로부터 추천받아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그 중 면담에 동의한 6명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1〉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현황

번호	도서관명	설립일	번호	도서관명	설립일
1	성북정보도서관	2002.03.19.	9	청수도서관	2014.02.19.
2	아리랑도서관	2004.05.04.	10	월곡꿈그림도서관	2017.07.22.
3	해오름도서관	2009.07.01.	11	아리랑어린이도서관	2017.12.22.
4	중암동새날도서관	2011.02.25.	12	성북이음도서관	2018.07.27.
5	서경로꿈마루도서관	2011.08.23.	13	장위행복누리도서관	2019.06.28.
6	석관동미리내도서관	2011.12.27.	14	성북길빛도서관	2019.12.19.
7	달빛마루도서관	2012.02.02.	15	글빛도서관	2021.05.27.
8	정릉도서관	2013.05.03.			

〈표 2〉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운영 현황(2016-2022)

연도	개최 도서관(기관)	공론장수	참여자수(명)
2016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작은도서관네트워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총8개 구립도서관, 도서관 외 2개 기관)	10	601
2017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총5개 구립도서관)	10	336
2018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총6개 구립도서관)	6	267
2019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5개 구립도서관)	5	293
2020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정릉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5개 구립도서관)	22	215
2021	성북정보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총7개 구립도서관)	7	221
2022	성북정보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청수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길빛도서관(총7개 구립도서관)	7	240
계		67	2,173

〈표 3〉 면담 대상자의 특성

구분	공론장 운영경력	사서 근무경력	직위	면담일자
사서 A	7년	21년	관장	2022.10.21.
사서 B	6년	20년	관장	2022.10.21.
사서 C	7년	20년	관장	2022.10.15.
사서 D	4년	10년 10개월	담당자	2022.11.23.
사서 E	4년	9년 3개월	담당자	2022.11.20.
사서 F	3년 10개월	9년 5개월	담당자	2022.11.23.

면담 자료의 수집은 2022년 10월부터 11월 까지 면대면 면담 및 서면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면대면 면담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을 위한 면담지는 공론장의 준비와 진행 과정, 공론장 운영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획과 운영, 공론장의 주요 성과 영역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고, 면담 대상자가 질문에 충분히 고민하여 답할 수 있도록 면담 전에 이를 배포하였다. 면담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추

가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고갈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였다. 모든 면대면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화되었으며, 면담 이후 전사되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사된 자료를 면담 대상자에게 보내어 면담 대상자에 의한 점검과 수정을 통해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분석은 분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질적 연구 데이터 분석 도구인 QSR NVivo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Nvivo를 활용하여 면담 내용인 녹취록을 불러들인 후 텍스트들을 집중하여 읽어 가며 녹취록의 문구와 문장 단위로 개념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하여 상위 범주를 형성하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났을 때 새로운 노드를 형성하여 코딩하거나 이전에 생성된 노드와 의미가 통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기존 노드에 포함하여 코딩하였다. 코딩 완료 후 코딩된 노드들 중에서 공통된 의미를 가지는 노드를 상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동 연구자들이 각자 코딩하는 작업을 수행한 뒤, 이후 결과를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있을 경우 토론을 통해 조정하였다. 그 결과, 208개의 노드가 생성되었고, 최종 5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상위 범주와 그에 속하는 하위 노드 수는 다음과 같다: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33개),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43개),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49개),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24개),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59개).

한편, 분석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검토 방법을 채택하였다 (Pattern, 2015). 면담에 참여한 1인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면담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 4. 연구 결과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확인한 결과,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 4.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도서관 공론장은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며 교류하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주민들이 '평소 못 보는 이웃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거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여서 인상적이다'라고 말한 참여 주민의 의견을 전하며, 공공의 소통 공간이 부재한 도시에서 도서관 공론장이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사서 A, B, C, D, E, F). 공론장에서 서로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만나 그들의 관심과 고민, 의견을 나눔으로써 지역 주민 간의 상호이해가 이루어졌으며, 조언을 주고받는 과정이 동반됨으로써 도서관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도서관 공론장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사서들은 참여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공론장이 끝나고 나면 시민들의 표정이 좋아진다. 시민들이 평소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언 기회가 잘 없는 상황에서 그 기회를 얻었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이 있다. 공론장에서 타인과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순간의 공기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뿌듯하다. 주민들은 어디에서도 이런 장을 마련해주지 않는데 도서관이 이런 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사서 C)

“반려동물에 관한 공론장을 운영하는데 한 참여자가 ‘1인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로 이웃과 갈등으로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 공론장을 통해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했다. …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게 도서관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지역사회에 주었다고 생각한다.” (사서 E)

이러한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를 만들어 내는 공론장의 역할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디지털시대에 함께 살아남기’라는 주제의 공론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의 고민을 다루며 노인과 청소년 간 일대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세대와의 만남과 소통을 지원하였다. 스마트폰의 활용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사서 A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배워서도 좋았지만 젊은 학생과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 즐거웠다고 한다. 그 학생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봉사로 만났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였을까? 학생들이 여기서 만난 마을 어르신이 지나가면 인사도 하는 관계들이 생겨나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서 A)

또한 공론장에서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노인정, 사회복지관, 실버복지센터, 학교, 시민단체, 소극장, 독서회, 출판사,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조직이 연결되고, 지역 내 상인, 교사, 예술가, 독서회원, 시민단체 회원, 활동가, 기관 대표, 학생, 주부 등의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연결되어 소통하였다(성북구립도서관, 2017a; 2017b; 2018). 지역에 사는 같은 주민이지만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 영유아 부모, 외국인, 홀몸 어르신 등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행복한 정릉마을을 같이 상상해보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성북구립도서관, 2021). 이처럼 도서관 공론장은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서관 공론장을 통한 지역 주민의 교류는 지역 주민 간의 네트워크로 확장되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의 시민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후속 효과로 이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사람, 정보’가 필요할 때 도서관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사서 D).

#### 4.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

성북구립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론장의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 의제가 정해지면 주민의 의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에서 사서들은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제 관련 배경지식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를테면 의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신뢰할만한 단행본, 신문기사, 논문, 영상 등의 정보를 개발하여 전시하고 안내한다. 나아가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책 속의 일부 내용을 추출해서 제공하는 등의 주제와 관련한 정보제공에 주력한다. 또한 의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강좌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론장 이후에도 의제에 대한 심화 학습과 독서가 가능하도록 사후 강좌나 독서회가 운영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론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의제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를 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전 공론화 과정 없이 공론장을 열면 참여 주민들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 배출 정도로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오염 정도

로 이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정치, 경제, 과학, 사회, 국제적인 것들로 얽여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학습 및 배경지식이 없으면 공론장에서의 이야기가 결국 ‘쓰레기 분리 수거 잘하자’ 정도의 경험적인 이야기로 제한된다. 사전 작업이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공론을 위한 사전 작업이 풍성하면 공론장 토론 내용도 풍성하다.” (사서 B)

이처럼 사전에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의제에 대한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론 의제에 대한 주민학습은 당일 개최되는 도서관 공론장에서도 이루어진다. 공론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론장에 참여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주민의 지식과 경험이 확장되고 있다. 도서관 공론장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학습에 대해 사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학업을 마치고 시민으로서 공부할 기회가 없는 데 그것을 공공도서관이 가능하게 한다. 작은 질문과 고민이 생기면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사서가 제시하는 자료들로 환기하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며 나와 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시민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이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공공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학업을 마치고 계속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도서관 공론장이 이를 마련해줬다고 본다.” (사서 D)

이처럼 공론장에서 주민의 학습과 성장이 활

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론장의 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추동하는 기능은 공론장 의제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공론장의 주요 의제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왔는데 의제의 변화에서 주민의 시야가 점차 확대되어 성장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를 사서 B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론장 의제에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쓰레기나 주차 문제’ 등 지역에서 ‘나의 불편함’이 주민들에게 현안이었는데, 2018. 9년도에는 ‘마을 학교나 청소년 공간’이 의제가 되어 ‘마을에서의 교육과 문화 문제’로 시야가 확장되었다. 이후 ‘관계와 기후위기’라는 의제를 운영했다. 의제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니 주민들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 처음에는 일반 주민이었다가 도서관과의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나 경험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이 생기고, 이러한 관심이 의제 확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사서 B)

이처럼 공론장 의제가 주민들의 ‘개인적 불편의 문제’로 출발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발전하고, 마침내 ‘세계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의 도서관 공론장 참여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공론장이 주민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참여한 주민의 후기에서도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 사서 D는 주민들이 “공론장을 통해 의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의미 있는 일을 알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

움을 얻었다’,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작성한 후기를 전하며 공론장이 주민을 성장시키며, 주민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4.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서관 공론장의 의제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관심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사서들은 주민의 요구와 관심, 지역사회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주민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수렴한 뒤 공론장의 주제를 최종 선정한다. 공론장의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 요구와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의제가 지역 문제나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주민 참여의 양태가 매우 다양해지며 참여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테면 주민들이 공론장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의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주민 참여형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환경 문제나 쓰레기 문제, 청소년을 위한 공간 등의 지역 현안을 다루는 공론장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사서 B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하는 공론장을 설계할 때 실천 문제까지 고려했다. 공론장에서 ‘쓰레기 문제’가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

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로 확장되었다. 우리 마을 쓰레기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다섯 명 정도의 시민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는 통장들도 많이 왔다. 처음에는 쓰레기 청소로 출발했지만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로 확대되어 지금은 이 지역의 환경단체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서 B)

이처럼 공론장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서 A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로 심각해진 쓰레기 문제,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의제로 진행했는데 사전 프로그램으로 ‘따로따로’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플라스틱 중에 양질의 자원인 페트병 뚜껑이 너무 손쉽게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왔고, 뚜껑이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를 모아 필요한 곳에 기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가 2021년에 확대되어 도서관 주변의 초등학교 세 곳과 주민자치회도 함께 참여했다.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관련 환경 그림책을 소개하였다. 주민끼리만 이런 실천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의 심각함을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과 행정 구청에 전달해야겠다고 하여 당시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편지를

써서 구의회와 구청에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 구청장, 구의원이 주민과 아이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환경 문제해결에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더 힘쓰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사서 A)

이와 같이 공론장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시민의 토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정책 제언과 같은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론장이 지역의 거주자인 ‘주민’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변화를 추동해내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공론장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조율되며”(사서 C, D),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사회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안 좋다고 좋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성북구립도서관, 2017b, 30)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와 도서관이 의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 스스로가 상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등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민 변화와 활동을 지켜본 사서들은 도서관 공론장이 “시민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자 “시민을 훈련시키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사서 B, E). 사서 A 또한 도서관 공론장이 시민 역량의 개발에 기여한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공론장에 참여했던 주민이 도서관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의미 있다. 참여 주민이 문화예술 활동가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독서회 분이 마을활동을 하고 그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참여 주민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성장하는 주민을 보면서 이 사업과 활동은 확실히 시민력을 키웠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더 생기는 것 같다.” (사서 A)

이와 같이 도서관 공론장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와 의사결정, 정책 제언, 지역 변화를 위한 실천과 활동 등의 주민 참여를 추동해내어 지역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 4.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공론장에서는 주민의 공통 관심사와 문제에 대한 숙의와 토론,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론이 수렴되는 등 도서관 공론장이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관련 환경이 미약한 지역사회에서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비교적 접근이 쉬우면서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에 모여 상호소통하고 의견이 조율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주민 경험은 도서관

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주민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다(사서 C, D, F).

특히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은 공론장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론장에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나 찬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과정을 동반하기에 주민에게 토론과 조율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사서 B).

이에 더해, 시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지원하는 공론장 기능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확신과 신념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서들은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시민 학습의 장이라는 도서관 역할을 체험할 기회가 없이 교과서에 담긴 명제로만 이해했으나 공론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사서 D). 아울러 사서 F도 같은 맥락에서 공론장을 통해 경험한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도서관은 아고라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체감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공론장과 같은 프로그램 확대와 영향이 지속되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아고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서 F)

이와 같이 주민과 사서의 경험에서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서관 공론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

도서관 공론장은 지역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도서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론장 참여로 주민이 도서관을 보다 친근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서들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문턱이 높고 본인이 갈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공론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도서관을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여기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사서 B, D, F). 아울러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이 주민센터와는 다르게 머물고 싶으며 친숙하게 느껴지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한다”(사서 A), “어르신들이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한다”(사서 B)는 주민 경험을 전하였다. 공론장에 참여한 한 시민은 “마을 안에서 도서관은 사람들이 만나는 구심점이 되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보다 도서관이 갖는 공간적 매력이 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성북구립도서관, 2017b, 72). 이처럼 공론장을 통해 도서관이 편안히 머물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지역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호감도와 친근감이 증대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도서관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론장을 통해 경험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역사회의 중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요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사서들은 자료 이용이 전부였던 주민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도서를 수집하고 제공

하는 공공기관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공론장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생각이 확대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목도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사서B, D, F). 그러면서 “도서관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곳이다”, “도서관 때문에 마을을 떠나기 싫어졌다”고 한 주민의 이야기를 전했다(사서 D). 공론장에 참여한 주민의 소감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주민의 변화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의 중심이 어디냐고 물으면 도서관이 떠오른다’고 답하였으며, ‘도서관이 존재해줘서 고맙다’, ‘도서관이 주민을 성장하게 한다’고 공론장 경험에 대한 소감을 전하였다(성북구립도서관, 2017b).

이러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변화된 인식과 더불어 주민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성과도 발견되었다. 사서 D는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 사서에게 묻고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지역에서 도서관 사서가 “사람과 정보를 중개하는 정보전문가로 인식되어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신뢰는 다음 사서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이 저와 관계 맺기를 한 경우나 도서관네트워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관장이나 사서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도 변화다. 동물권 문제나 쓰레기 문제 같은 의제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다. 마을에서 생긴 문제인데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의논상대가 도서관과 사서가 된 점이 의미가 있다. 우리의

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다.” (사서 A)

이처럼 도서관과 사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하게 되는 주민 인식의 변화에는 무엇보다 공론 의제 설정에서부터 관련 의제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사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서들은 의제 설정을 위해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서비스를 설계하며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서의 존재가, 사서의 전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사서 C, D). 바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주민 경험이 사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서 C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민들이 공론장 의제와 관련된 자료, 의견, 컬렉션 구성과 전시,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면서 사서의 역할을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 사서 역할과 자료가 드러나게 되면서 사서의 전문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사서들이 이런 자료가 있다거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등을 안내해주면 주민들은 사서들을 똑똑하게 여기며 어떨 때는 고맙다고 말한다. 책 대출하는 기능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사서와 도서관의 전문적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사서 C)

또한 이러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주민의 변화된 인식은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 공론장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응원과 지지를 경험한 사서E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을in수다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초기 반응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다. 초기에는 ‘도서관이 왜?’라는 반응이었다면 1~2년이 지나서는 응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연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느낀다. 지역사회가 공론장인 마을in수다를 ‘도서관 사업’을 넘어서 ‘마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느낀 경험들이 있다.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지역 모임에서 공론장 의제를 함께 고민한다든가, 나아가 공론장의 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른 마을 사업을 기획한다든가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최근 들어 ‘사서 혼자 너무 많은 집을 지지 말라’며 자원 활동을 자처하고 함께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사서 E)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공론장에서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의 특징과 의미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공론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의미는 지역 공론장으로서 도서관의 가



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판단된다. 무엇보다 지역 공론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친숙한 의제를 중심으로 공적인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형태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호래, 2014, 157). 이 연구 사례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도서관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이 확인되었는데 바로 도서관이 지역 공론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 사례에서 공공도서관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 명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도 주요한 발견이다. 지금껏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논의할 때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실제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성북구립도서관이 운영한 도서관 공론장에서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회합, 세미나, 토론 등의 행사와 주민의 만남과 연결이 이뤄지는 공간과 장소로서의 역할을 조명한 다양한 연구(Audunson, 2005; McCook, 2003; Leckie & Bushman, 2007)와 궤를 같이 한다. 도서관 공론장은 주민들이 관심사를 배경으로 만나 소통하며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제 3의 장소로

서, 지역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교류를 촉진하는 소셜룸으로서, 이곳에서 주민들 간에 상호 신뢰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등 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이 확인되었는데,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시민성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공론장의 일반적인 역할이 사례 도서관의 공론장에서도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정보 자료의 수집과 제공기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을 확장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례 도서관의 공론장에서 개별 주민을 서로 연결하고, 주민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활동을 추동하는 기능이 발견되었는데 도서관이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공공 생활에 대한 기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확대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러 연구자의 주장(Goulding, 2009; Kranich, 2012; Scott, 2011; Willingham, 2008)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 도서관이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 구조와 과정을 만들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도서관 공론장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 모델과 역할은 시민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이끌어내는 도서관의 전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에서는 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다른 공론장과의 차별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차별점은 공론 촉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선행연구 중 정보 영역에서 공론장을 논의해 온 연구자들은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공론장 운영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조효래, 2014). 이에 반해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은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읽어내고 자료를 지원하여 상호 학습과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계되어 공론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작동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정보요구를 토대로 공론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토론 촉진을 위해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과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국 도서관협회가 지원하는 공론장 사례와도 차별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도서관협회가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대화와 토론을 위한 공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증재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론장의 대화와 토론,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서비스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성북구립도서관 공론장에서는 그 운영과정에서 사서의 정보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도서관 공

론장의 설계 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지역 문제해결 및 정책 제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공론장은 주민자치회나 지역의 시민단체 역할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을 도서관 공론장 운영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도서관 공론장이 지역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 공론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신념을 강화하고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등의 추가적인 성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론장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에 접촉하여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지원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과 경험이 사서가 지역사회 정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이 구현한 공론장은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협력적으로 구현한 국내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의 경험을 통해 공론장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전략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공론장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과 사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는데도 일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도서관 공론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역할과

영향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에서 공론장에 대한 논의와 적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타 공공도서관으로 공론장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계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역할의 주요 특징을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들의 경험과 시각을 중심으로 도출한 반면 공론장에 참여한 지역 주민 대상의 직접적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 대상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조사 또한 별도의 후속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김주영, 조다희, 최찬란 (2020).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DOI: 10.16981/kliss.45.1.201403.197
-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DOI: 10.16981/kliss.47.4.201612.339
- 성북구립도서관 (2017a). 마을공론장 2017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17b). 공공도서관 동행원탁.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18). 마을공론장 2018 마을in수다. 서울: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립도서관 (2021). 2021 '마을in수다' 참여자 설문조사.
- 성북문화재단 (2016). <마을in(人)수다> 시범사업 계획(안). 서울: 성북문화재단.
- 윤영태 (2008). 미디어와 공간: 지역 공론장의 생산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8, 49-86.  
DOI: 10.35731/kpca.2008.8.002
- 이승민 (2016).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9-50.  
DOI: 10.14699/kbiblia.2016.27.2.029
- 이승훈 (2010). 공공 영역과 '시민됨'의 문화적 조건. 사회이론, 37, 101-130.
- 조효래 (2014). 지역 공론장으로서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사회학, 15(4), 153-186.
- 주명진, 박일호 (2012).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과 미술관 공공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13(6), 415-428.
- 주선미 (2010). 공론장 이론을 통한 시민성 연구. 사회과교육, 49(2), 171-183.
- 하상복 (2016).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Aabø, S., Audunson, R., & Vårheim, A. (2010). How do public libraries function as meeting plac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2(1), 16-26.
- Alstad, C. & Curry, A. (2003). Public space, public discourse, and public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3(1), 1-19. <https://dx.doi.org/10.32655/LIBRES.2003.1.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2).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about-ltc>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공역(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Audunson, R. (2005). The public library as a meeting-place in a multicultural and digital context: The necessity of low-intensive meeting-places. *Journal of Documentation*, 61(3), 429-441.
- Audunson, R., Aabø, S., Blomgren, R., Hobohm, H.-C., Jochumsen, H., Khosrowjerdi, M., Mumenthaler, R., Schuldt, K., Rasmussen, H., Rydbeck, K., Tóth, M., & Vårheim, A. (2019). Public libraries as public sphere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s of the public library's role in six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396-1415.
- Buschman, J. (2005a). Libraries and the decline of public purposes. *Public Library Quarterly*, 24(1), 1-12.
- Buschman, J. (2005b). On libraries and the public sphere. *Library Philosophy & Practice*, 7(2), 1-8.
- Garnham, N. (2000). *Emancipation, the Media, and Modernity: Arguments about the Media and Soci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oulding, A. (2009). Engaging with community engagement: Public libraries and citizen involvement. *New Library World*, 110(1/2), 37-51.
- Habermas, J.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Bourgeois Society*. 한승완 역(2013).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파주: 나남.
- Jaeger, P., Gorham, U., Bertot, J., & Sarin, L. (2013). Democracy, neutrality, and value demonstration in the age of austerity. *The Library Quarterly*, 83(4), 362-382.
- Johansson, V. (2004). Public libraries as democratic intermediaries: some examples from Sweden. *New Library World*, 105(1/2), 47-59.
- Kranich, N. (2012). Libraries and civic engagement. *Library and Book Trade Almanac*, 2012, 75-96. <https://doi.org/10.7282/T3VX0DWS>
- Kranich, N. (2013). Libraries and strong democracy: moving from an informed to a participatory 21st century citizenry. *Indiana Libraries*, 32(1), 13-20.
- Leckie, G. & Buschman, J. (2007). Space, place, and libraries: an introduction. In Buschman,

- J. & Leckie, G. eds. *The Library as Place: History, Community, and Culture*, Libraries.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3-25.
- McCook, K. (2003). Suppressing the commons: misconstrued patriotism vs psychology of liberation. *Reference and User Services Quarterly*, 43(1), 14-17.
- Patton, M.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LA: SAGE Publications.
- Scott, R. (2011).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ommunity building. *Public Library Quarterly*, 30, 197-227.
- Vårheim, A. (2007). Public libraries & social capital: the need for research.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9(3), 416-428.
- Webster, F. (2014).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 London: Routledge. 조동기 역(2016). *현대정보사회이론*. 서울: 나남.
- Widdersheim, M. & Koizumi, M. (2016). Conceptual modelling of the public spher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2(3), 591-610.
- Widdersheim, M. & Koizumi, M. (2017). A communication system approach to the problem of public library legitimac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9(1), 23-33.
- Williamson, M. (2000). Social exclusion and the public library: a Habermasian insight.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2(4), 178-186.
- Willingham, T. (2008). Libraries as civic agents. *Public Library Quarterly*, 27(2), 97-110. <http://dx.doi.org/10.1080/016168408021148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Hyo-Rae (2014). A study on debates program of local television as public spheres. *Korean Regional Sociology*, 15(4), 153-186.
- Ha, Sang-Bok (2016). Reading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Seoul: Sechang Media.
- Joo, Myung-Jin & Park, Ilho (2012). Hannah Arendt's conception of publicity and the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ity of museum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3(6), 415-428.
- Joo, Sun-Mi (2010). The citizenship on the public sphere theory. *Social Studies Education*, 49(2), 171-183.
- Kim, Ju-Young, Jo, Da-Hee, & Choi, Chan-Ran (2020). *How Libraries Change Our Lives*.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Lee, Seung-Hun (2010). Cultural conditions of public space and 'citizenship'. *Social Theory*, 37, 101-130.
- Lee, Sung-Min (2016).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9-50. DOI: 10.14699/kbiblia.2016.27.2.029
- Park, Seong-Woo (2013).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by the case studies of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47(4), 339-358. DOI: 10.16981/kliss.47.4.201612.339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45(1), 197-215. DOI: 10.16981/kliss.45.1.201403.197
-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2016). <Maeul in(人) Suda> Pilot Project Plan.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7a). Village Public Forum 2017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7b). Public Library Companion Round Table.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18). Village Public Forum 2018 'Maeul in Suda'. Seoul: Seongbuk Cultural Foundation.
- Seongbuk Public Library (2021). 2021 'Maeul in Suda' Participants Survey.
- Yoon, Young-Tae (2008). A study on production of local public sphere.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8, 49-86. DOI: 10.35731/kpca.2008..8.002